

일반인 구매 문 열린 LPG차 시장 선점 경쟁 뜨겁다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이 높아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현대차는 또 '쏘나타=택시'라는 기존 인식을 깨기 위해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도 하반기 예정된 K5 완전변경(풀 체인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일반인용 LPG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승용 모델로는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K5·K7, 르노삼성 SM5·SM6·SM7이 있다.

여기에 다른 완성차업체도 일반인용 LPG 차량 출시를 서두르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가 살아날 것인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LPG차(승용)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으로만 출시되면서 시장은 계속 위축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PG차 총등록 대수는 203만5403대로, 8년째 감소세다. 한때 243만대(2011년)에 달했던 LPG 차량은 연평균 약 5만대씩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30년 282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에 LPG차에 대한 규제

현대차 신형 쏘나타 모델 출시 기아차 K5 완전변경 모델 검토 휘발유보다 연료비 25% 저렴 2030년 282만대까지 증가 예상

가 전면적으로 풀리면 일반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PG 차량의 경우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쏘나타를 기준으로 LPG 모델 공인 연비는 10.3km/ℓ로 휘발유 모델(13.3km/ℓ)에 비해 낮지만 가격이 1당 797.8원(오피넷 3월 2주차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1359.3원)보다 싸다.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조건이라면 쏘나타 LPG 모델의 연간 유류비는 116만

1859원으로 휘발유 모델(153만3067원)보다 25% 가량 덜 드는 셈이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이 아닌, 일반인용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 차이가 없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지난달 자동차 내수·수출·생산 일제히 감소

조업일수 감소·부분파업 영향 내수 12만대 판매...4.2% 감소

지난달 자동차 내수·수출·생산이 조업일 감소와 부분파업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6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산업부는 조업일 감소와 수입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국산차는 1.3% 감소한 10만3922대, 수입차는 19.1% 감소한 1만6695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팔리세이드, 싼타페 등 중대형 SUV 인기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5만 3406대가 판매됐다.

쌍용차도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신차 효

과로 내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기아차는 일부 신차를 제외한 대부분 모델 판매가 부진해 10.2% 감소한 3만322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GM은 크루즈, 캡타바 등 일부 모델 판매중단에 따라 전체 판매가 10.8% 감소했고 르노삼성도 세단형 모델 판매 감소로 8.0% 줄었다.

수입차의 경우 경유차 판매 감소에 일부 업체 재고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며 전체적으로 19.1% 감소했다.

수출은 조업일 감소와 세단형 모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만442대를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 감소와 르노삼성의 부분파업 등으로 7.1% 감소한 25만7267대를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세먼지 심각한데...차 주행거리 경유차 절반 차이

1642억6400만km 전체 50.2%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거리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271억km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288만2000대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9.2km로 오히려 0.7% 줄었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 주행거리가 1642억6400만km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

경유차의 주행거리는 전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44.9%(2014년)→46.1%(2015년)→48.0%(2016년)→49.0%(2017년)→50.2%(2018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차의 주행거리는 1169억5200만km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LPG차 주행거리는 360억6300만km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총 62억km를 주행해 전년보다 주행거리가 33.7%나 늘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차량 주행거리가 1.1%, 전남은 2.6% 증가했다. 세종시 증가율이 16.7%로 가장 높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국 테슬라 첫 전기 SUV '모델Y' 공개

미국 테슬라의 첫 전기 SUV (스포츠유틸리티차) 모델인 '모델Y'가 베일을 벗었다.

테슬라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모델Y를 공개했다.

모델Y는 테슬라의 전기 세단 모델인 '모델3'보다 10% 정도 크게 제작돼 7인승까지

가능하며 가격은 사양에 따라 3만9000달러(4436만원)부터 6만 달러(6826만원)까지 책정됐다.

모델Y는 스탠더드 레인지, 롱 레인지, 듀얼 모터 AWD, 퍼포먼스 모델 등으로 라인업이 구성됐다.

3만9000달러의 보급형 모델인 스탠더드 레인지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7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193km/h

이다.



스탠더드 레인지는 2021년 봄에 출하될 예정이다.

모델Y 라인업 가운데 최고가인 퍼포먼스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50km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241km/h이다.

스탠더드 레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모델의 출하 시기는 내년 가을로 예정됐다.

모델Y는 2500달러를 미리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최우수축제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2019. 3.21.목 ~ 3.24.일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